**국내에 RTI 적용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

우리나라에도 2005년도에 중재반응모델의 개념이 소개되면서 학습장애 분야의 전문학회, 세미나, 전공 수업 등에서 개념적으로 계속 거론되어 왔다. RTI가 현장에서 학습장애 판별을 위해 실제로 적용된 적은 없고 학습부진지도와 맞물려서 현재 방과후 지도하는 것과 결부시켜서 중재반응모델로 보는 학자들도 있긴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자면 유사하긴 하지만 같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RTI의 취지가 좋고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되어 잘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모델공교육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일반학생들과 함께 교육하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통합교육현장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삭제 ) 학습장애 진단 및 판별 과정의 일부로 RTI가 우리나라에 제대로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전제되어야 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연구를 통해서 각 교과별로 과학적이고 질적으로 우수한 중재가 어떤 것들이며 어떤 구성요소들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어야 하고 효과적인 중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RTI는 진전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중재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과 진보율을 측정하여 단계마다 결정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정확하고 유용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평가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어야 하고 이를 수행할 일반교사, 특수교사, 심리검사자(혹은 school psychologist), 관련된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임상경험의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이 사용할 타당하고 신뢰로운 평가 도구 및 체제가 각 영역별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셋째,** 학습장애 진단 및 판별에 관련된 예를 들면, 일반교사, 특수교사, 심리검사자, 기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구성과 이들의 전문성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지금까지 파악된 RTI는 주로 CBM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성상 각 영역(읽기, 수학, 쓰기 등)에서 특정 기술이나 기능만을 대상으로 이루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읽기영역의 경우 대다수 기본적인 읽기나 읽기 유창성을, 수학의 경우는 수학의 사칙연산에 국한된 경우가 많이 있어 왔다. 물론 이 능력들이 각 영역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기초이자 핵심요소이긴 하지만 소리내어 읽기만을 잘한다고 국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단순히 계산을 잘한다고 해서 그 학생이 수학을 잘하는 것은 아님을 교육자들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교육이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각 영역 내에서 반드시 꼭 이수해야 하는 것들을 모두 포함시켜서 RTI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섯째,** 우리나라에서 만일 RTI가 적용된다면 저학년의 경우(즉, 1, 2, 3학년) 일단 단계적인 중재를 받은 후 SLD를 결정할 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한 범주인 발달지체1)(학령기이면서 9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와의 관련성과 차별성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SLD의 경우는 두뇌와 관련된 문제들을 배제할 수 없는 장애영역이므로 교육적인 접근 이외에 의학적인 접근 또한 병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는 RTI가 체계적으로 진행되면서도 의학적인 접근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RTI 과정을 통해 SLD 적격성 평가에 의뢰된 아동들 중에는 표준화된 인지력 검사에서 -1.75SD~-1SD에 속한 아동들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불일치모델을 적용할 것인지 혹은 인지능력은 정상범위여야 하므로 “SLD는 인지능력이 -1SD이상이어야 한다”라고 정할 것인지를 진단팀에서 결정해야 한다. 한편, 인지능력 면에서-1.75SD와 -1SD사이에 있는 학생들도 SLD에 포함시키야 한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SLD를 인지적인 측면에서 하위 유형(subtype)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SLD를 Type I(+2SD 이상), Type II(+2SD~ 0), Type III(0~-1SD), Type IV(-1.75SD ~-1SD) 등으로 나누어 각 유형별 학업성취도와 진전도율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과 경향들을 제시하여 진단할 때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덟째,** RTI를 통해서 학습장애 진단 및 판별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교육시스템 내에서 three tier model이 잘 이루어져야만 RTI가 의미있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이를 담당할 교사들이 능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이 모든 범위의 학생들을 다룰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하고 현직에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는 재교육이나 연수를 통해서 능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만일 RTI를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RTI가 자리매김하기까지 교육, 행정, 교육청, 교원, 학부모, 각 영역의 검사자, 관련된 사람들 모두 각 입장에서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의 중심에 항상 “학생”을 놓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